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8, 예레미야 30-33, 회복의 단계, 2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8회, 예레미야서 30-33장의 회복단계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너머의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 즉 그가 당시의 백성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비추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것들은 복원 단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현재 경험되는 약속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기도 한다는 개념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미래의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네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도시의 재건,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셋째, 백성을 다스릴 새로운 다윗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은 열방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오면 그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성취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회복의 세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후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일이었습니다. 키루스와 페르시아는 538년에 바빌로니아를 격파했습니다.

그 직후 키루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그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일어납니다. 구약의 예언 시대가 끝나고, 신약 중간기를 거쳐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의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더욱 가혹한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에 관해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초림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새 언약의 현재적 측면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약의 성취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발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옛 언약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옛 계약이 발효된 죽음이 있었습니다.

새 계약을 발효시키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된 두 가지 주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축복에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약속된 죄에 대한 철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완전한 희생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때 새 언약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과 같이 구약의 다른 예언들 옆에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을 배치할 때, 우리는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 즉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최후의 만찬 밤, 마지막 회기 누가복음 22장 30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그러므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세우는 피가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더 크고 값진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새 언약의 새로운 측면, 즉 예수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발효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해 가르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동물 희생과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지상의 장막이나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지상의 성전에서만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희생으로 그는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그 완전한 희생의 결과로, 그분은 레위인, 동물 희생, 지상의 장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우월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우리를 위해 맺으시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바라볼 일이 없었으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히브리서 8장 8~12절은 예레미야 31장 31~34절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그러므로 이 구절은 분명히 초대 교회에 중요했고,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분명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새 언약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백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긴 인용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같은 개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에 관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속죄일과 제사, 곧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매년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례 제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반복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나니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구약에는 속죄가 있었지만, 실제로 동물의 제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 언약이 약속한 근본적인 용서에 온전히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주면서 일어날 영적인 능력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져옵니다.

예수의 죽음은 옛 언약과 옛 희생이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성취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러므로 왕국 약속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아버지 우편에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완전한 일로 인해 그분의 왕국 통치의 새로운 측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시며, 그것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새로운 것, 종말론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의 왕국 통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고 시작하는 시대는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여 이르시되, 이 날 후에는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0장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길고 긴 인용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 약속은 예레미야서의 신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새 언약이 가져온 이러한 능력, 능력, 변화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은 히브리서는 옛 유대인의 방식, 제사, 모세 율법, 지상의 성전, 이 모든 것들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새 언약의 종말적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새 계약을 발효시킨 예수의 능력 있고 온전한 희생이 있는데 왜 동물 희생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왜 옛 언약과 모세의 율법과 그것이 가져온 패배와 죽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의 인용문은 히브리서의 논증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용서와 권한 부여, 활성화의 축복을 가져온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새 언약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일으키시는 영적 변화를 볼 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레미야가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신학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약속과 예수의 죽음을 통한 그 언약의 축복의 실현, 실행, 개시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1단계는 망명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왕국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선포하러 오시며, 그분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죽음을 통해 그것을 가져오십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예레미야, 그리고 십자가 사이에 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와 예레미야와 십자가 사이의 더 깊은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의 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국가적 종으로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맡게 될 주님의 종 개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신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 나라로 삼아 당신의 영광을 열방에게 선포하고 선포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하였다. 이사야 42장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눈멀고 귀먹은 종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열방에게 나타내기는커녕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신학에는 국가 종의 실패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개인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일련의 노래를 통해 이 종 개개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는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 개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까? 그는 어떻게 국가 종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 53장에서는 이 종 개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완수하려면 죽어야 하고 자기 목숨을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그를 멸하고 고난을 겪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다 그릇 행하여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의로운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국가종의 복귀를 가져옵니다. 좋아요.

자, 당신은 아마도 우리가 예레미야와 새 언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사야와 고통받는 종과 함께 여기서 길을 잃습니까? 음, 다른 몇 가지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통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부대가 그 구절을 읽고 빌립이 설명하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는 종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그 예언의 맥락에서 이것을 보면, 그 종의 정체는 실제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소 신비롭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를 볼 수 있고 실루엣의 그림자도 볼 수 있지만 이사야서 자체에서는 이 인물의 정확한 정체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에 관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관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질문도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에서 고통받는 종을 묘사하는 방식이 그가 새로운 모세로 제시되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 사람을 묘사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는데, 주님은 이 인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인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설명하면서 공개 직무 설명을 남깁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도움을 구하는 표징이 걸려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인이 될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백성을 회복시키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지자들이 말한 새로운 출애굽과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이 새로운 모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글썄요, 개별 종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이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개 직무 설명이 거기에 배치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개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종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곧 갇힌 자들을 놓아 주실 때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의미에서 종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이르면서 우리는 마침내 여기 예레미야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가려던 곳은 여기였다.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적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면서 여러 면에서 묘사된 주님의 종,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개인 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의 종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0장의 4절부터 9절까지의 종 노래에서는 종 개개인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것이며 이는 즉시 그와 국가 사이에 직접적인 대조를 제공합니다.

그는 맞기 위해 등을 돌릴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나서는 옹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등을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의 메아리를 거의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약의 불성실과 그들이 범한 죄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에서는 그 때문에 그가 체포되고 바셀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공개 직무 설명에 누가 대답할 것 같나요? 글썄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확실히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통 받는 종에 관한 위대한 구절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놀라운 구약의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깎이기 전에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고통받는 하인의 공개 직업 설명이라면,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이것은 지원하고 싶은 직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직업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난 받는 종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사용될 것이며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고난은 예레미야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애통함 중 하나와 고백 중 하나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이 직면한 모든 고통과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꺾하여 이르기를 나무와 그 열매를 멸하고 그를 산 자의 땅에서 끊자 하는 것이 나를 해할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따라서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념,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개념, 이사야 53장에서 종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는 예레미야 11장에서 예레미야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본문이 먼저 나오는지, 이사야서의 연대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킬 고통받는 종에 대해 주어진 이 공개 직무 설명에서 예레미야는 여러 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회복을 가져올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예레미야는 직업 설명에 확실히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부르심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그는 매를 맞기 위해 등을 내맡깁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반대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처럼 그는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궁극적인 일은 예레미야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다음으로 그 직무 설명에 답하고 훨씬 더 큰 방법으로 성취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말하면, 그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그의 원수들의 의도는 그를 죽여 산 자의 땅에서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업 설명에 끝까지 대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시적으로 사실이었던 것이 예수님에게도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인도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이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여호와 예레미야는 그 속죄 제물과 속죄를 제공하십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죄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자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면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를 위해 궁극적으로 고통받는 종을 예상하고 예시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완전한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개인이 극한 고난의 종으로서 입을 열지 아니하며,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의 예레미야의 고백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때때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 53장이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고통받는 종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중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본 것처럼,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중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예레미야 7장 16절, 11:14, 14:11, 15:1).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가 직면한 고통과 반대를 통해,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백성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고통받는 종은 이스라엘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분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위로의 책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고침과 약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미래에 있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오직 그분이 하실 완전한 종과 완전한 희생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올 때 새 언약의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성적 취향이나 성적인 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술이나 결혼 생활의 문제, 탐욕이나 이기심 등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음의 법을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볼 때, 나는 4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변화해야 할 다른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한 종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희생을 바쳤기 때문에 새 언약의 능력은 실재합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요구된 죽음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마도 사역의 가능화 또는 권한 부여에 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이자 선교사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이 목사, 교사, 그리스도인 일꾼, 심지어는 단순한 신자라면 생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 가끔씩 떠올려야 할 질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과 메시지와 소명에 담긴 영생과 죽음의 놀라운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으로 불리는 선지자들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종류의 의무, 같은 종류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 그리고 이 복음에는 영생과 죽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스스로 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이러한 일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 언약의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6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시는 충분함은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새 언약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 언약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고린도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이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나는 새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아니면 일부 사람들처럼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그러자 그는 '좋아, 내 자격 증명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유효한 사도임을 보여주는 외부 편지와 세 개의 추천서를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2절에 너희 자신이 우리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쓴 추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음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아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미지를 조금만 바꾸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 덕분에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 언약의 효과를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동일한 비유를 다루며, 너희는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나타내느니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당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영의 힘을 통해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쓴 이 추천서는 새 언약에 약속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영합니다. 새 언약이 우리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준 새 언약과 왕국 약속에는 지금이 있고 아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유배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축복과 유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새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맺으신 새 언약과 미래에 이스라엘과 맺으시려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이고 우리는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해석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 계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집이니라 그래서 질문은, 여기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질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나도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도, 유다 집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새 언약의 약속,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예레미야서부터 구약의 나머지 역사와 하나님의 전체 언약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행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구약의 구원 역사의 일부였던 다른 모든 언약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성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다른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약속하신 새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다른 모든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약의 다양한 언약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언약이 있고, 그것은 고립되어 있고, 그 자체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략을 바꾸십니다.

실제로 모든 계약은 궁극적으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서로에게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예수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땅을 주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새 언약에 앞서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모든 축복이 궁극적으로 세계 전체와 열방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그분의 축복을 가져오고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중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으로 인해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그 언약적 약속을 통해 새 언약의 축복과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 과거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용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능력과 권세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익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좋아요.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글썄요,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대리인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와 질문을 계속 처리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구약의 언약에 대한 언급,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진술은 마침내 세 번째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회복과 왕국의 약속. 우리는 1단계와 유배에서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와 왕국의 시작,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언약의 축복의 시작과 실행과 시작, 그리고 그 혜택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현실화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종말론적 축복을 완전히 시행하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성취에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당신이 믿고 신뢰하며 적절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당신 개인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예레미야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언약 왕국 회복의 최종 완성의 3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침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단계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완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내 말은, 그분은 초림과 관련하여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분의 왕국 통치의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측면에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왕국의 완전한 최종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전사로 다시 오십니다. 그는 적을 파괴합니다. 그분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록 20장에서 우리를 위해 묘사된 평화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 회복 약속 이행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율법이 최종적으로 그의 백성의 마음에 완전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능력마저도 우리에게서 빼앗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넣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내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우리 삶에 또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죄의 법과 죄성의 현실이며, 우리는 여전히 그 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 세션에서 John Goldingay가 말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자들의 삶을 볼 때 때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국이 완전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씨름하고 씨름해야 하는 불멸의 몸을 살지 않게 될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3단계의 일부죠. 그러나 나는 또한 이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가진 정말 훌륭한 성경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인식되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상상했던 회복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언약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것들과 방법들이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최종 완성에서 그들의 성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교회 내에서 이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성, 즉 이러한 특정 문제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회복의 약속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취되고 비유적으로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일부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왕국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해 온 다른 신학 체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완전하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교회에서 성취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 다른 신학 체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문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경험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날 교회에서 비유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참 할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든 예수께서 임명하신 12사도는 우리에게 하느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새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비유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구원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특유의 구원역사가 끝까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과 귀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서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특별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특별한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몇 군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대답은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3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낮의 해를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의 질서를 밤의 빛으로 삼으시며 바다를 뒤흔드시느니라 그 파도가 으르렁거릴지라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만약 이 고정된 순서가 출발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고정된 순서는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해가 뜰 때와 밤이 올 때 우리가 관찰하는 고정된 순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주기.

나는 결코 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해가 뜰까, 내일은 뜰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정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이 규례가 내 앞에서 폐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맹세하셨다고 믿는 언약의 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맺은 구체적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글썄요, 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매일 밤 나타나는 별과 달에 열중하는 것처럼 그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확고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3단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 하며 때로는 거기에 있는 은유와 비유를 부당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기초가 되는 언약적 약속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라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에는 이러한 회복 약속 가운데서 그 회복 약속의 구체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 땅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에서 표징 행위를 하는데, 이는 땅에 대한 언약적 약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서 그의 친척 하나멜의 재산을 되찾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여기서 구약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친척이 토지를 팔아야 할 때마다 그 땅을 다시 사서 가족 손에 두는 것이 당신의 의무였습니다. 주님은 가족이 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이 일을 수행하고 그들은 소유권 증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예레미야와 그의 가족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서면 문서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단순히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표적 행위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왜 땅을 사느냐, 왜 이 돈을 내고, 왜 투자를 하는지, 증서 두 장을 쓰고 한 장을 봉인하는 이 과정을 왜 거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열어두고 보존을 확인하기 위해 병에 담아두시나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들어가고 로마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온 땅 또는 온 땅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일부, 구원 역사의 일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방법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체적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와 구약성서에 그러한 결론으로 이끄는 단서와 힌트, 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성서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에 대해 묵상할 것입니다. 이 초점은 민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초점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확립한 신학적 요점은 역사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의 불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첫째, 현 시대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의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 그랬듯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일부였던 남은 신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현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두 번째 방법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국가적 눈멀음의 시기가 지나간 후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을 준비하실 때와 관련하여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만물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국가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로써 온 이스라엘이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불경건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는 내 언약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서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왕국과 국가적 실체,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상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대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상기시키는 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숙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실제로 어떤 중요성을 부여합니까? 글쎄요, 저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말한 직후, 그가 즉시 다루려고 하는 다음 문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헌신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의 왕국을 약속했습니다.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재건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약속이 단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1단계는 땅으로의 귀환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새 언약을 발효시키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도 그 회복의 일부로 성취되는 미래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8회, 예레미야서 30-33장의 회복단계입니다.